



정민규/정수정 선교사

TEL: +55-11-9 1256-2087 E-mail: j_m_kyu@hotmail.com

주소 : R. Talmud Thora, 238 APT 42 Bom Retiro, Sao Paulo-SP

CEP : 01126-020

GP선교회 : 서울 송파구 문정동 77-3번지 TEL: 02-443-0883

후원계좌 : 하나은행 990 090819 170 정민규, 정수정

2026년 6월

“그리스도의 계절! 나의 소망!”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브라질에서 문안드립니다.

이제 브라질은 한국과 반대로 겨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방>



<부활절>

4월은 부활절 예배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방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브라질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념의 심방은 없지만, 신청을 받아서 교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다과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질 문화에 로마 카톨릭 문화가 있어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부활절 같은 절기에는 가족이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가거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비록 교회에 나오지 않은 가족들이라고 해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를 통해서 성도의 가족들이 한 걸음씩 교회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5월 1일은 교회 창립기념일을 맞아 야유회를 다녀 왔습니다.

약 50 여명의 브라질 성도들과 한인이 모여 예배도 드리고 게임을 즐기며 점심도 먹으면서 서로서로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교회에 3인조 강도가 들어와 교회의 물건을 훔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침입하여 다행히 사람이 없었으나 키보드, 노트북, 마이크 등을 가져갔고 다음날 발견하게 되어 많이 놀랐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가 있는 지역에도 강도가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교회와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양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 중에 아마존 지역에서 사는 성도가 있는데, 예전에 기도편지에 적었던 머리에 종양이 있어 수술한 사무엘 가정입니다.

어린 사무엘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오는데, 올 때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사무엘의 엄마(Joemia)는 Zoom으로 제자양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 왔을 때도 병원에서 만난 두 가정을 전도하는 등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에미아(Joemia)에게 아마존 지역에 돌아가 거든 제자양육을 시작하라고 권면하였는데, 조에미아는 남편부터 제자양육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조에미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교회의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2. 제자양육과 토요성경 공부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도록. 특별히 사무엘의 엄마 조에미아 자매를 통해서 아마존 지역에서도 제자양육이 일어나도록.
3.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정체기가 왔습니다. 정체기에서 벗어나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4. 네이지(Neide) 자매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지역 전도를 위한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네이지 자매와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영혼 사랑과 전도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5.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6. 소연이는 한국에서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7월이면 시험을 보고 9월이면 결과가 발표됩니다. 소연이뿐만 아니라 창연이와 태연이도 이제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나이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민규/정수정 선교사(소연/창연/태연)

연락처 : j_m_kyu@hotmail.com 또는 <http://www.facebook.com/mingyu.jeong2>